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연구*

이 정 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문제에 관련되는 부적응적 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토대로 부적응적 사고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확립하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정을 거쳐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중고등학생 740명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9요인구조(임의결론 내리기, 자기비하, 문제행동 과소평가, 자기중심화, 완벽과 인정추구, 자기비난, 타인비난, 낮은 인내력, 부정경험 과대평가)로 이루어진 총 44문항의 부적응적 사고척도를 개발하였다. 내적일치도와 요인별 문항충점간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사고척도는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K-CATS) 및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척도(R-GABS)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에 따라 분류된 집단간에 부적응적 사고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적절한 수준의 변별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적 사고, 내면화-외현화문제, 인지특수성, 척도개발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의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에 자문을 해주신 권정혜, 하은혜, 배주미 선생님과 논문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Tel: 02)920-7603, E-mail : jungyeon@sungshin.ac.kr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크게 범주화하여 이에 관련된 인지적 특수성(광역문제 인지특수성; broadband specificity)을 연구하는 것과, 특정 문제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특수성(특정문제 인지특수성; narrowband specificity)을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Weiss, Susser, & Catron, 1998). 이와 같이 특정문제 인지특수성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정신병리모델과 평가 및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Epkins, 2000).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장애 청소년이 행동장애 청소년보다 파괴화, 과잉일반화, 개인화, 선택적 주의의 인지왜곡특성을 모두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mpton, Hasselt, Bukstein과 Null, 1994). 아동청소년용 인지요류 질문지(CNCEQ; Children's Negative Cognitive Err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정서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보다 과잉일반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인지요류 전체 점수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esser, Kempton, Van Hasselt, Null과 Bukstein, 1994). Quiggle, Garber, Panak과 Dodge(1992)는 우울한 아동과 공격적 아동 모두 적대적 단서에 선택적인 집중을 보였고, 개인화는 우울집단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미뤄볼 때, 선택적 주의를 내면화, 외현화문제에 모두 공통되게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현상이고, 개인화는 내면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Leung과 Wong(1998)은 아동청소년용 인지요류 질문지(CNCEQ)를 사용한 결과 공병집단이 내면화집단과 다르게, 외현화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인지도식(CTI-C; 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인지왜곡(CNCEQ), 인지내용(CCL; Cognition Checklist)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Epkins, 2000)를 수행한 결과, 외현화문제 아동과 정상통제집단의 아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병(내면화-외현화 혼재)집단은 내면화집단과 다르지 않으나 외현화집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인지적 변인이 내면화문제에만 특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 김유경, 2006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서로 불일치할 뿐 아니라(Joiner & Wagner, 1995),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인지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이뤄지지 않아 외현화문제가 어떠한 인지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다(Epkins, 2000). 또한 외현화문제를 지닌 청소년이 정상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인지적 왜곡을 보이는지 조차 불확실하다(Leung 등, 1998). 다만 공격적이거나 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은 대인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인지결손(cognitive deficiency)을 보이고, 사회적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을 보이며(Crick & Dodge, 1994; Lochman & Dodge, 1994), 공격적인 아동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지니고 있고, 동료들의 적대감과 공격성은 과대지각하면서 자신들의 공격성은 과소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dens, Cavell, & Hughes, 1999; Lochman & Dodge, 1998). 따라서 내면화-외현화문제에 따른 인지적 특수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인지왜곡을 측정하는 척도가 내면화문제 쪽으로 편파되지 않고, 내면화-외현화문제를 고르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Leung등(1998)과 Epkins(2000)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인지왜곡이 내면화문제에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CNCEQ, CTL-C, CCL)은 일차적으로 Beck의 이론에 기초하여 내면화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척도들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 인지왜곡이 내면화문제에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에서는 Beck의 이론과 다른 인지모델과 방법론, 그리고 다른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내면화-외현화 집단간의 인지특수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정윤 등, 2006).

한편 이제까지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온 측정도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내면화문제에 해당하는 인지오류를 측정하기 위한 것들로서, 주로 Beck의 우울증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비록 소수이지만 외현화문제에 해당하는 인지오류를 측정하려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Lefebvre(1981)가 개발한 인지오류 질문지(CEQ; Cognitive Error Questionnaire)이다. 이 척도는 Beck의 인지이론에 기초하여 Beck, Rush, Shaw와 Emery(1979)가 제시한 7가지 인지오류 가운데 파국화, 과잉일반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와 같은 4가지 인지왜곡유

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험자들에게 가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Leitenberg, Yost와 Carroll-Wilson(1986)은 CEQ를 기초로 하여 동일한 하위척도로 이뤄진 아동용 인지오류 질문지(CNCEQ)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CEQ와 CNCEQ의 경우 Beck의 인지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으로 내면화관련 문제에 해당하는 4가지 인지왜곡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척도를 가지고 외현화문제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왜곡을 측정할 경우 인지왜곡은 내면화문제 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외현화문제집단은 통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한편 외현화문제(공격성과 비행)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지왜곡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서 심리측정적 성질이 밝혀진 것은 Barriga와 Gibbs(1996)가 개발한 HIT(How I Think Questionnaire)이다. 이는 약 12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최소화/오낙인, 최악을 가정하기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HIT는 높은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 구성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를 통제된 후에도 HIT와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내면화-외현화문제 각각에 특수한 인지적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Beck의 이론을 기초로 제작된 내면화관련 인지왜곡 측정도구를 가지고 대부분 연구를 수행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적 특성을 측

정하는 척도들은 내면화문제관련 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측정도구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내면화와 외현화문제와 고루 관련되는 인지적 특성을 함께 측정가능한 설문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Beck의 인지이론과 인지요류에만 국한하지 않은, 내면화-외현화문제와 고루 관련될 수 있는 인지왜곡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에 인지왜곡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은 크게 개방형의 방식과 강제선택형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지는 생생한 인지를 잘 반영할 수는 있으나, 매우 정교화된 채점 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연구나 임상장면에서 손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자신과 유사한 정도를 평가하게 하는 방식도 응답자들이 손쉽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Lefebvre, 1980). 또한 CEQ나 CNCEQ와 같은 외국의 질문지들을 빈안해서 사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지왜곡 질문지의 경우 낮은 신뢰도와 일반화의 제약 등이 문제로 거론되어져 왔다(Barriga, Gibbs, Potter & Liau, 2001).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할 질문지는 응답자들이 자기보고형식으로 비교적 쉽게 반응할 수 있는 형식의 강제선택형(리커트 방식) 질문지이어야 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한 우수한 심리측정적 성질을 보유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 뿐 아니

라,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식의 부적응적 사고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절차

부적응적 사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인지요류나 왜곡,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적응적 사고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부적응적 사고란 외부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인지왜곡현상으로서, Beck의 인지이론에 기초한 ‘인지요류’나 ‘인지왜곡’에만 국한하지 않고, RET에서 언급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인지과정상의 문제인 인지왜곡유형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인지관련 척도들이 주로 내면화문제 중심적인 사고유형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척도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부적응적 사고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의 척도들-비합리적 신념척도(최정훈과 이정윤, 1994), 역기능적 사고 척도(권석만, 1994),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이주영, 김지혜, 2002), HIT (Barriga 등, 1996), 인지요류 질문지(Lefebvre, 1981), 아동용 인지요류 질문지(배주미, 2000),

자기패배적 믿음 척도(김기정 등, 2000), 핵심 신념목록(최영희, 이정흠, 1997), 공격성 질문지(서수균, 권석만, 2002), 적대적 자동적사고 척도(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척도(서수균 등, 2005) 등에 포함된 인지왜곡유형들을 모두 수합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내면화문제에 해당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Kempton등(1994), Messer등(1994), Quiggle등(1992)은 파국화, 과잉일반화, 개인화, 선택적주의를 꼽았으며, 이정윤 등(2006)은 개인적 완벽성, 파국화, 과잉불안염려를, Rapee, Spence, Cobham과 Wignall(2000)는 확률의 과대평가와 결과의 과대평가를 꼽았다. 외현화문제에 해당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Edens등(1999), Lochman등(1998)은 자신의 공격성을 과소지각하고 타인의 공격성을 과대지각하는 경향성, Barriga등(1996)은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최소화/오낙인, 최악을 가정하기를 언급하였다. 이영호(2000)는 알콜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으로 해로운 결과의 축소, 문제행동에 대한 정당화, 문제행동의 부정적 효과(영향)를 무시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Deborah(1999)는 분노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으로 파국화, 완벽주의와 인정에 대한 욕구, 타인비난,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내면화 또는 외현화문제와 관련된다고 밝혀진 여러 인지왜곡 및 비합리적 신념들로부터 연구자는 모두 10가지 부적응적 사고유형을 도출하였다. 내면화문제 특이적인 부적응적 사고는 모두 6가지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자기비하', 나와 관련 없는 일조차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탓하는 '자기비난'(개인화의 의미 포함), 일이나 상황의 부정적인 면을 선택적으로 지각

하여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반복적이거나 과장되게 지각하는 '부정경험 과대평가'(선택적 추상화, 과잉일반화, 파국화의 의미 포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큰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추측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임의결론 내리기'(지레짐작의 의미 포함), 자기자신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가정하였다. 외현화문제 특이적인 부적응적 사고는 모두 4가지로,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 욕구만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소홀히 생각하는 '자기중심화',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타인비난', 문제행동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의 의미나 영향을 축소하는 '문제행동 과소평가'(정당화의 의미 포함), 다른 사람에 의해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부족한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가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기비하와 자기중심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생각이므로 역기능적 도식에 가까운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두 가지는 각각 내면화-외현화문제에 관련된 일차적 인지왜곡에 속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외의 8가지 요인들은 상황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는 이차적 인지왜곡유형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10가지 부적응적 사고 유형별로 각각 7문항씩을 작성하여 총 70문항의 예비 척도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기존의 관련 척도와 문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고, 또한 연구자가 새로운 문항들을 만들

어 추가로 작성하였다. 예비문항들을 상대로 3인의 심리학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부적응적 사고의 유형으로 선정된 10개 요인의 타당성과,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적절성 및 문항의 표현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하위요인의 개념들과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보다 명료화하였다.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 약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40명(중학생 252명, 고등학생 488명)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적응적 사고 질문지와 이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질문지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374명(50.5%), 여학생 366명(49.5%)이었으며, 이들이 보고한 자신의 성적은 상이 73명(9.9%), 중상이 311명(42.0%), 중하가 285명(38.5%), 하가 71명(9.6%)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이 20명(2.7%), 중상이 392명(53.0%), 중하가 303명(40.9%), 하가 23(3.1%)로 보고되었다.

측정도구

부적응적 사고 예비척도

부적응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 척도를 제작하였다. 위의 연구절차를 통해 제작된 부적응적 사고 예비척도는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 과대평가,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문제행동 과소평가, 인정에

대한 요구,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 임의결론내리기, 완벽주의의 총 10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에 7문항씩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심함을 나타낸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chniering과 Rapee(2002)가 개발하고 문경주 등(2002)이 번안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인지, 사회불안인지, 신체적 위협인지, 적대적 인지와 같은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위협인지를 제외한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 .913$ 이었다.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giuseppe, Leaf, Exner 와 Robin(1988)이 개발하고 서수균 등(2005)이 번안한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R-GAB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5개의 비합리적 신념척도와 1개의 합리적 신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척도 31문항만 사용하였다. 하위척도에는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포함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 .941$ 이었다.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해련(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Korean-Youth Self Repor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문제행동의 측정을 위해서 K-YSR의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에 해당하는 총 23개 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편집중적 성향을 반영하는 문항을 제거하여 20개를 사용하였고, 외현화문제행동은 비행과 공격성에 해당하는 총 30개 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공격성과 다소 거리가 먼 문항들을 제거하여 20개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 .896$ 이었다.

연구결과

요인분석

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항개발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70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SPSS WIN 13.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모두 15개였다. 총 15개 요인 중 자기요인에서 .30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과 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개념이 모호한 것들 12문항을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58문항을 대상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해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각회전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해당요인과의 요인부하량이 .30이하를 나타내거나, 문항내용이 개념적으로 해당요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6개를 제거하였다. 이 결과 52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2개 문항을 대상으로 3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내용이 개념적으로 해당요인에 부적합하게 묶이는 문항과 한 요인에 2개 이하로 묶이는 문항, 그리고 자요인 부하량과 타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5이하인 것 모두 6문항을 제거하여, 46문항이 선정되었다.

46문항을 대상으로 4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요인에 한 문항만 남은 문항과 자요인 부하량과 타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5이하인 한 문항, 모두 2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4문항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남겨진 44문항을 대상으로 사각회전방식으로 회전하여 형태 요인계수행렬을 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적응적 사고 척도는 9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41%를 설명해 주었다. 요인 1은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음을 뜻한다'와 같이 '임의로 결론내리기'를, 요인 2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나는 나 자신이 싫다'와 같이 '자기비하'를, 요인 3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들키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와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표 1. 부정적 사고 척도의 요인계수행렬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 1. 임의결론내리기(5문항)									
1. 내가 인사를 해도 상대가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76)	.747	.020	-.084	.053	-.122	.037	-.128	-.091	-.053
2.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다.(74)	.674	-.140	.017	.052	.090	-.035	-.077	.015	.099
3.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72)	.671	.029	.021	-.050	-.006	.115	.056	-.047	-.114
4.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멈춘다면,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71)	.581	.024	.038	-.084	.151	.098	.034	-.067	-.007
5.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음을 뜻한다.(68)	.541	-.137	.167	.036	.073	-.031	.056	-.020	-.032
요인 2. 자기비하(7문항)									
1. 나는 무능력하다.(84)	-.006	-.861	.021	-.021	-.084	-.054	-.033	-.067	-.050
2. 나는 내 자신이 싫다.(82)	-.005	-.804	.067	-.044	.034	-.004	.022	.000	-.023
3.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78)	-.060	-.744	.063	.038	.005	-.014	.043	.069	-.185
4. 나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76)	.065	-.735	.012	-.068	-.054	.068	.006	-.072	.051
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68)	-.058	-.650	-.107	-.035	.047	.197	-.111	-.057	.163
6.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68)	.070	-.589	.000	.104	.048	.035	-.013	.021	-.063
7.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67)	.195	-.484	.108	-.014	-.029	.114	-.065	.037	-.102
요인 3. 문제행동 과소평가(5문항)									
1.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들켜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76)	-.007	.013	.761	.034	-.051	.009	.001	-.085	.067
2. 가게 주인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건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66)	-.047	.045	.692	-.080	-.003	.041	.081	-.060	-.022
3.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68)	-.019	-.086	.681	.027	.153	.006	.021	.040	.155
4. 모든 사람은 법을 어기므로, 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65)	.015	-.049	.580	.088	-.049	.021	-.152	.136	-.046
5. 돈이 많은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갚지 않아도 괜찮다.(66)	.136	-.001	.577	.087	-.094	-.059	-.024	-.037	-.087

표 1.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요인계수행렬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 4. 자기중심화(4문항)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한다.(62)	-.011	.080	-.065	.714	-.043	.166	.127	-.151	.252
2.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72)	-.061	-.082	.214	.632	.015	-.110	-.083	.020	-.085
3. 설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77)	-.024	.038	.164	.598	-.016	.062	-.112	-.117	-.186
4.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68)	.223	-.056	.056	.446	.163	-.140	-.074	-.044	-.173
요인 5. 완벽과 인정추구(8문항)									
1. 나는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75)	.065	-.084	-.030	.127	.730	-.195	.041	-.061	-.085
2.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68)	-.086	.066	-.060	.095	.681	.059	-.054	-.052	-.125
3.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63)	-.197	-.047	.073	-.104	.673	.048	.019	-.171	-.070
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68)	.151	.045	.023	-.074	.608	.080	-.197	.049	.208
5.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63)	.131	.056	.013	-.089	.532	.112	-.114	.022	.015
6.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63)	.175	.007	-.104	.344	.509	-.010	-.057	.074	.125
7.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66)	.238	.059	.089	-.058	.496	.057	-.118	-.014	.065
8.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다.(64)	.183	-.234	.004	.040	.484	-.042	.174	-.139	-.133
요인 6. 자기비난(5문항)									
1.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일이 잘 못 되면 내 탓인 것 같다.(72)	-.025	-.105	-.102	.056	-.036	.755	.005	-.093	.127
2. 운동시합에서 우리 팀에 진 경우에 그것이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진다.(72)	-.047	-.013	.034	.066	.113	.650	-.055	.141	-.183
3. 어떤 일로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내면 그것이 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73)	.192	.057	.082	-.129	.017	.648	.014	-.079	-.180
4.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을 책망한다.(67)	.134	-.139	.046	-.013	-.005	.546	-.035	.062	.075
5. 나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다.(66)	-.048	-.299	.106	.146	-.047	.464	.025	-.021	-.111

표 1. 부정적 사고 척도의 요인계수행렬 (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 7. 타인비난(3문항)									
1. 내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싸움을 걸어 오기 때문이다.(79)	-.026	-.019	.001	.059	.091	.079	-.795	.099	.034
2.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다.(79)	.057	-.104	.006	-.112	-.003	-.056	-.739	-.245	.047
3.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74)	-.035	.060	.075	.129	.107	.009	-.430	-.285	-.362
요인 8. 낮은 인내력(4문항)									
1.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것을 참기가 어렵다.(75)	.007	-.040	.051	.033	.027	-.014	.006	-.756	.136
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면 참을 수가 없다.(84)	.023	-.056	.002	.046	.016	-.019	-.216	-.744	-.043
3.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기가 어렵다.(77)	.095	-.071	-.014	.117	.205	.057	.084	-.626	-.047
4.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그대로 참아서는 안된다.(68)	.251	.064	.033	.100	-.007	-.068	-.148	-.428	-.139
요인 9. 부정경험 과대평가(3문항)									
1. 만약 내가 한 가지 운동을 잘 못한다면 다른 운동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70)	.040	-.219	-.077	.013	.025	.031	-.018	.149	-.598
2. 전에 실패했던 일은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76)	.104	-.151	.065	.056	-.013	.135	.011	-.117	-.519
3. 친구와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도 그 친구와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73)	.169	-.018	.068	-.130	.135	.156	.068	-.125	-.441
고유치	9.31	3.91	2.61	1.68	1.53	1.42	1.29	1.14	1.06
설명변량(%)	21.16	8.89	5.92	3.81	3.48	3.23	2.92	2.59	2.41
전체설명변량(%)	54.41								

와 같이 ‘자기중심화’를, 요인 5는 ‘나는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완벽과 인정에 대한 요구’를, 요인 6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일이 잘못 되면 내 탓인 것 같다’와 같이 ‘자기비난’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7은 ‘내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싸움

을 걸어오기 때문이다’와 같이 ‘타인비난’을, 요인 8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것을 참기가 어렵다’와 같이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요인 9는 ‘전에 실패했던 일은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와 같이 ‘부정경험에 대한 과대평가’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과 같은 9개의 하위요인들이 연구자가

가정했던 내면화-외면화문제 특정적 부적응적 사고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법과 사각회전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다. 요인 1에는 낮은 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완벽과 인정추구, 임의결론내리기, 문제행동과소평가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818, .726, .724, .693, .506, .327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다른 요인에서 각각 -.045, -.118, -.008, .069, .384, .270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요인 2에는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과대평가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861, .838, .700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다른 요인에서 각각 -.056, -.087, .124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하지만 요인 1 가운데 임의결론내리기와 문제행동과소평가는 양쪽의 요인에 모두 중등도로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두 요인간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각각 .122와 .05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낮은 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완벽과 인정추구가 하나의 요인으로,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과대평가가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부적응적 사고척도 전체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1$ 이고, 요인별로 하위척도 총점과 문항간 상관계수는 표 1에 문항별로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인간 상관분석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9개 하위요인간의 상

관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사고 전체 척도와 각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임의 결론내리기)은 완벽과 인정에 대한 추구, 낮은 인내력,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요인 2(자기비하)는 자기비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 3(문제행동에 대한 과소평가)은 자기중심화 성향과, 요인4(자기중심화)는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 및 타인비난과, 요인 5(완벽과 인정추구)는 임의결론내리기,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 및 타인비난과, 요인 6(자기비난)은 자기비하 및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와, 요인 7(타인비난)은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 및 완벽과 인정에 대한

표 3.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 1	.77	13.56	4.07
요인 2	.87	15.47	5.45
요인 3	.71	8.35	3.20
요인 4	.64	9.58	2.91
요인 5	.81	25.64	6.10
요인 6	.74	12.16	3.70
요인 7	.67	8.88	2.72
요인 8	.76	10.99	3.38
요인 9	.56	6.58	2.42
전체	.95	111.20	21.55

주. 요인 1. 임의결론내리기, 요인 2. 자기비하, 요인 3. 문제행동 과소평가, 요인 4. 자기중심화, 요인 5. 완벽과 인정 추구, 요인 6. 자기비난, 요인 7. 타인비난, 요인 8. 낮은 인내력, 요인 9. 부정경험 과대평가.

표 4. 부적응적 사고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	1.000								
요인2	.360***	1.000							
요인3	.269***	.293***	1.000						
요인4	.263***	.185***	.352***	1.000					
요인5	.518***	.208***	.137***	.304***	1.000				
요인6	.382***	.549***	.192***	.102**	.266***	1.000			
요인7	.372***	.226***	.236***	.333***	.432***	.209***	1.000		
요인8	.466***	.222***	.244***	.435***	.469***	.187***	.467***	1.000	
요인9	.436***	.503***	.277***	.212***	.299***	.405***	.252***	.289***	1.000

** p<.01, *** p<.001

주. 요인 1. 임의결론내리기, 요인 2. 자기비하, 요인 3. 문제행동 과소평가, 요인 4. 자기중심화, 요인 5. 완벽과 인정 추구, 요인 6. 자기비난, 요인 7. 타인비난, 요인 8. 낮은 인내력, 요인 9. 부정경험 과대평가.

추구와, 요인 8(낮은 인내력)은 완벽과 인정에 대한 추구, 타인비난 및 임의결론내리기와, 요인 9(부정경험 과대평가)는 자기비하, 임의결론내리기 및 자기비난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타척도간의 상관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 척도와 수정판 일반적 신념 및 태도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부적응적 사고 척도는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와 .630, 수정판 일반적 신념 및 태도척도와 .803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사고 척도와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임의결론내리기)은

사회불안인지와, 요인 2(자기비하)는 우울 및 사회불안인지와, 요인 4(자기중심화)는 적대인지와, 요인 6(자기비난)은 우울 및 사회불안인지와, 요인 7(타인비난)은 적대인지와, 요인 8(낮은 인내력)은 적대인지와, 요인 9(부정경험 과대평가)는 우울 및 사회불안인지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사고 척도와 수정판 일반적 신념 및 태도척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5(완벽과 인정추구)는 성취에 대한 집착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요인 6(자기비난)은 자기비하와, 요인 7(타인비난)은 무시에 대한 과민 경향성과, 요인 8(낮은 인내력)은 무시에 대한 과민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9(부정경험 과대평가)는 자기비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 개발된 부적응적 사고 척도가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척도와 유의미한

표 5. 부적응적 사고 척도와 타척도와의 상관계수

	부적응적 사고 척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전체
우울인지	.323***	.771***	.271***	.149***	.195***	.459***	.168***	.227***	.404***	.553***
적대인지	.258***	.103**	.184***	.312***	.308***	.147***	.435***	.374***	.171***	.389***
사회불안인지	.438***	.531***	.185***	.109**	.247***	.543***	.206***	.219***	.417***	.530***
자동적사고전체	.436***	.643***	.272***	.221***	.305***	.514***	.313***	.328***	.438***	.630***
성취집착	.465***	.314***	.138***	.279***	.674***	.353***	.353***	.439***	.379***	.633***
자기비하	.567***	.647***	.325***	.244***	.433***	.549***	.322***	.355***	.509***	.722***
낮은인내	.515***	.497***	.213***	.216***	.441***	.435***	.315***	.463***	.470***	.649***
무시과민	.527***	.223***	.146***	.339***	.537***	.233***	.544***	.531***	.287***	.600***
인정집착	.557***	.284***	.236***	.317***	.587***	.331***	.371***	.507***	.402***	.650***
신념태도전체	.647***	.483***	.254***	.345***	.665***	.467***	.475***	.569***	.503***	.803***

** p<.01, *** p<.001

주. 요인 1. 임의결론내리기, 요인 2. 자기비하, 요인 3. 문제행동 과소평가, 요인 4. 자기중심화, 요인 5. 완벽과 인정 추구, 요인 6. 자기비난, 요인 7. 타인비난, 요인 8. 낮은 인내력, 요인 9. 부정경험 과대평가.

상관을 보임으로써, 부적응적 사고 척도가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집단간 비교

새로 개발된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에서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에 해당하는 내면화 문제행동 점수에서 상위 25%에 해당(16점 이상)하며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서는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는(10점 이하) 사람들(n=77)과 비행과 공격성에 해당하는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서 상위 25%에 해당(10점 이상)하고 내면화 문제행동 점수에서는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는(16점 이상) 사람들(n=84), 그리고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각각 16점, 10점 이상) 사람들(n=68),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에서 모두 하위 25% 이하에 해당하는(각각 6점, 3점 이하) 사람들(n=63)로 집단을 구분하여, 이 네 집단 간에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결과를 살펴보면,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혼재집단이 가장 부적응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응적 사고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었다. 내면화 문제행동 집단은 임의결론내리기, 자기비하, 완벽과 인정추구, 자기비난, 부정경험 과대평가에서 외현화문제행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은 문제행동에 대

표 6.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집단간 부적응적 사고척도 점수의 차이검증

	내면화집단 ¹ M(SD)	외현화집단 ² M(SD)	내-외혼재집단 ³ M(SD)	비문제행동 집단 ⁴	F 값	사후검증 (S-N-K)
요인 1	15.56(3.77)	13.65(3.87)	15.93(3.98)	11.81(3.80)	16.302***	1,3>2>4
요인 2	19.74(6.48)	15.06(4.08)	20.87(5.66)	11.11(3.29)	53.116***	1,3>2>4
요인 3	7.74(2.72)	10.32(3.75)	10.53(3.49)	6.70(2.04)	25.998***	2,3>1>4
요인 4	9.27(2.90)	10.58(3.10)	11.29(2.79)	8.44(2.57)	13.582***	2,3>1,4
요인 5	28.12(5.90)	24.95(5.90)	28.97(5.91)	24.24(5.97)	10.840***	1,3>2,4
요인 6	14.56(3.83)	12.24(3.18)	15.13(4.07)	9.71(2.82)	33.007***	1,3>2>4
요인 7	9.82(2.61)	9.40(2.41)	9.51(2.58)	7.97(2.75)	6.770***	1,2,3>4
요인 8	11.42(3.08)	11.67(3.41)	13.47(2.94)	9.19(2.72)	21.217***	3>1,2>4
요인 9	7.82(2.32)	6.74(2.26)	8.00(2.41)	5.51(2.17)	16.818***	1,3>2,4
전체	124.04(17.21)	114.62(17.07)	133.71(16.69)	94.68(17.55)	62.108***	3>1>2>4

*** p<.001

주. 요인 1. 임의결론내리기, 요인 2. 자기비하, 요인 3. 문제행동 과소평가, 요인 4. 자기중심화, 요인 5. 완벽과 인정 추구, 요인 6. 자기비난, 요인 7. 타인비난, 요인 8. 낮은 인내력, 요인 9. 부정경험 과대평가.

한 과소평가와 자기중심화에서 내면화 문제행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비난과 화나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력에서는 내면화집단과 외현화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사고 척도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변별해 줄 수 있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부적응적 사고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적응적 사고척도는 논리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정보처리과정을 반영하는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인지왜곡유형을 포괄하고자, Beck 등(1979)과 Barriga 등(1996)의 인지왜곡과 RET에서 언급하는 비합리적 사고로부터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9개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임의결론내리기, 자기비하, 문제행동 과소평가, 자기중심화, 완벽과 인정추구, 자기비난, 타인비난, 낮은 인내력, 부정경험 과대평가이다.

이를 기존의 척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ck의 인지이론에 기초한 4가지 인지오류-과국화, 과잉일반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로 구성된 Lefebvre(1981)의 CEQ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외현화문제에 해당하는 사고유형이 포함됨으로써 부적응적 사고의 유형이 훨씬 다양화되었으며, 선택적 추상화와 과잉일반화, 파국화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인지오류임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경험 과대평가로 일원화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이것이 타당화되었다. 또한 내면화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기비하 경향(Barriga, Landau, Stinson, Liao, & Gibbs, 2000)이 척도에 포함되었으며, 완벽과 인정추구, 임의결론내리기와 같은 부적응적 사고가 척도에 포함되었다. 외현화문제에 관련된 인지왜곡을 측정하는 Barriga등(1996)의 HIT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내면화문제에 해당하는 사고유형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적응적 사고의 유형을 다양화시켰으며, HIT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및 최소화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독립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HIT척도와 외현화관련 인지적 특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llis의 이론에 기초한 10가지 비합리적 신념-인정에 대한 요구, 개인적 완벽성, 비난경향성, 파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 해결-으로 구성된 Jones (1968)의 비합리적 신념척도(IBT)에 비해서 본 척도는 일반적인 사고의 비합리성보다는 내면화와 외현화문제에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IBT의 일부 척도들(인정에 대한 요구 및 완벽성, 비난경향성, 파국화, 과잉불안염려)은 본 척도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요인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IBT척도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9개의 하위

요인들에 대해 상위요인구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차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낮은 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완벽과 인정추구가 하나의 요인으로,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과대평가가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요인들은 내용상 외현화 부적응적 사고와 보다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단, 완벽과 인정추구는 내면화-외현화요인중 어느 한 쪽과 상관이 뚜렷이 높기보다는 임의결론내리기, 낮은 인내력, 타인비난 같은 요인들과 고르게 상관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의 세 요인이 외현화 부적응적 사고와 더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과대평가의 세 요인은 내면화 부적응적 사고와 더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신뢰도(내적일치도)는 .91로 매우 높았으며,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역시 .62~.84에 걸쳐 전체적으로 양호하였다. 하지만 요인 9(부정경험 과대평가)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집단을 대상으로 추후 9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요인 9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적응적 사고척도는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R-GABS)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부적응적 사고척도가 내면화-외현화집단을 구별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내면화문제집단이 외현화문제집단보다 임의결론내리기, 자기비하, 완벽과 인정추구, 자기비난, 부정경

험 과대평가의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문제집단은 내면화집단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과소평가와 자기중심화의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면화-외현화문제 혼재집단이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가장 많이 지녔으며, 내면화집단, 외현화집단, 정상집단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외현화집단이 정상집단과 인지적 특성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들(Leung 등, 1998; Epkins, 2000)은 결국 내면화문제 특정한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편파된 측정도구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외현화문제집단의 경우 내면화문제집단보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부적응적 사고의 경향이 다소 낮을 수는 있겠으나, 문제행동 과소평가나 자기중심화와 같은 외현화문제 특정한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명확히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외현화문제집단은 정상통제집단과는 물론이고, 내면화문제집단과도 구별되는 인지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Kempton 등, 1994)에서 내면화문제 특정한 인지적 특성으로 밝혀진 파국화, 과잉일반화, 선택적 주의는 본 연구에서 Rapee 등(2000)의 확률과 결과의 과대평가 개념을 포함한 부정경험 과대평가로 일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내면화문제집단에서 많이 보이는 부적응적 사고경향으로 밝혀져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개인화(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에 포함되어 측정됨) 역시 내면화문제집단에서 많이 보이는 부적응적 사고경향으로 밝혀져, 기존의 연구결과(Kempton 등, 1994; Quiggle 등, 1992)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정윤 등(2006)에서 밝혀진 개인적 완벽성도 본 척도

에서는 완벽과 인정추구로서 역시 내면화문제 특정한 사고경향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면화문제 특정한 부적응적 사고로 밝혀진 요인들은 모두 5가지로, 연구자의 원래 가정과 일치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완벽주의와 인정에 대한 요구는 서로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이 두 요인이 단일 요인으로 함께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자기중심화와 최소화, 해로운 결과의 축소, 문제행동에 대한 정당화, 문제행동의 부정적 효과(영향)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특성은 본 연구에서도 자기중심화와 문제행동 과소평가라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기존 연구들(Gibbs, Potter, & Goldstein, 1995; 이영호, 2000)과 일치하였다. 즉 외현화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내면화문제 청소년들과 구별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권리, 욕구만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자기중심화 경향이 뚜렷하며, 문제행동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의 의미나 영향을 축소하는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뚜렷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ibbs 등(1995)과 Deborah (1999)가 제시한 타인비난과 Deborah(1999)가 분노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으로 제시한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집단과 내면화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타인비난 경향성과 다른 사람에 의해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인

내력이 부족한 특성은 반드시 외현화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고라기보다는, 내면화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부적응적 사고경향으로 보여진다. 이는 Quiggle 등(1992)이 우울한 아동과 공격적 아동 모두 적대적 단서에 선택적 집중을 보였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이정윤 등(2006)이 내면화-외현화 집단간에 K-CATS로 측정된 적대적 인지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모두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이므로, 임상집단에게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특정 인지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모두 포함되는 인지왜곡인 부적응적 사고유형을 확인하여 이를 척도로 제작하여 심리측정적 성질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기존척도들이 내면화든 외현화든 특정문제의 인지특수성만을 측정하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내면화-외현화문제와 두루 관련되는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였으며, 기존 척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측정적 성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척도들이 외현화문제 특징적인 인지특성을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 제한점을 해결하여, 앞으로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인지특성이나 인지치료 연구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내면화문제 관련 인지적 특성에 있어서도 Beck의 인지오류 유형에만 국한하지 않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인지왜곡유형을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

리적 문제의 인지이론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상담이 점점 단기화되고 상담의 효과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인지치료 전후에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인지왜곡이나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부적응적 사고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인지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기에 확인해내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적응적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외에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이나 관찰법이 보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화 가능도를 추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보다 정확한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문제 인지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 집단간의 차이만 비교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광역문제내의 특정문제(예, 우울, 사회불안, 시험불안,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등)별로 집단을 모집하여, 특정문제 인지특수성을 밝히는 데도 이

척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 김기정, 백기청, 신미영, 양병환, 조연규, 최영희, 한창환 (2000). 자신감에 이르는 10단계. 서울: 학지사.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수균, 권석만 (2005).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87-206.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영호 (2000). 알코올 관련장애. 원호택 외 공저,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pp.361-401).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윤, 김유경 (2006).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에 따른 인지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4(1), 37-46.
- 이주영, 김지혜 (2002).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자기진술: 한국판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71-889.
- 최영희, 이정훈 (1997). *인지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rriga, A. Q., & Gibbs, J. C. (1996). Measuring Cognitive Distortion in Antisocial Youth: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How I Think"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2, 333-343.
- Barriga, A. Q., Landau, J. R., Stinson, B. L., Liao, A. K., & Gibbs, J. C. (2000). Cognitive distortion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36-56.
- Barriga, A. Q., Gibbs, J. C., Potter, G. B., & Liao, A. K. (2001). *How I Think Questionnaire Manual*.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E.,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eborah, A. (1999). *Cognitive distortion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 Edens, J. F., Cavell, T. A., & Hughes, J. N. (1999). The self-systems of aggressive children: A cluster-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441-453.
- Epkins, C. C. (2000). Cognitive Specificity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Community and Clinic-Referr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2), 199-208.
- Gibbs, J. C., Potter, G., & Goldstein, G. (1995). *The EQUIP Program: Teaching Youth to Think and Act Responsibly Through a Peer-Helping Approach*.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Joiner, T. E., & Wagner, K. D. (1995).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777-798.
- Jones, R. (1968). *A factorial measure of Ellis's irrational belief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nological College.
- Kempton, T., Hasselt, V. B. V., Bukstein, O. G., & Null, J. A. (1994). Cognitive distortions and psychiatric diagnosis in dually diagnose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217-222.
- Lefebvre, M. F. (1980). *Cognitive distortion in depressed psychiatric and low back pain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Vermont.
- Lefebvre, M. F. (1981). Cognitive distortion and cognitive errors in depressed psychiatric and low back pain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4), 517-525.
- Leitenberg, H., Yost, L. W., & Carroll-Wilson, M. (1986). Negative cognitive errors in children: Questionnaire development, normative data, and comparison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evaluation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28-536.
- Leung, P. W. L., & Wong, M. M. T. (1998). Can cognitive distortions differentiate between internalising and externalis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263-269.
- Lochman, J. E., & Dodge, K. A. (1994). Social-cognitive process of severely violent, moderately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366-374.
- Lochman, J. E. & Dodge, K. A. (1998). Distorted perceptions in dyadic interaction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Effects of prior expectations, context, and boy's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495-512.
- Messer, S. C., Kempton, T., Van Hasselt, V. B., Null, J. A., & Bukstein, O. G. (1994). Cognitive distortions and adolescent affective disorder: Validity of the CNCEQ in an inpatient sample. *Behavior Modification, 18*, 339-351.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apee, R. M., Spence, S. H., Cobham, V., & Wignall, A.(2000). *Helping your anxious child*. New Harvinger Publications.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9), 1091-1109.
- Weiss, B., Susser, K., & Catron, T. (1998). Common and specific features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118-127.

원 고 접 수 일 : 2007. 7.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7. 9. 20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Maladaptive Thoughts Scale for Adolescents

Jungyoon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maladaptive thoughts related to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and to verify it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A preliminary version of the Maladaptive Thought Scale (MTS-A) was administered to 740 adolesc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hibited that the MTS-A was composed of 44 items with nine factors: Jumping to conclusions, self-debasing, minimizing problem behaviors, self-serving, demand for perfection and approval, self-blame, other-blame, low tolerance, and maximizing negative experiences. The MTS-A exhibit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item-total correlation. The MTS-A also showed adequate construct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aladaptive thoughts,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 cognitive specificity, scale development